

#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16, 고고학과 역사적 다윗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세션 16, 고고학과 역사적 다윗입니다.

좋아요.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유다로 돌아와 유다 지파와 헤브론 지파를 다스리며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른 지파들의 초청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매우 현명한 전술적 결정을 내리고 통치할 중립 위치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가나안 또는 여부스의 도시 여부스 또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특히 그의 장군 요압은 이스라엘 이전의 이름인 시온의 성채나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Tzion은 원래 히브리어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이전 이름이며, 그 도시를 정복하고 그곳을 그의 왕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의 고대 이스라엘의 워싱턴 DC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복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고학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복잡한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몇 장, 아니 네 장 정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사울의 통치나 다윗의 통치로 거슬러 올라가는 키르베트 케이야파(Khirbet Qeiyafa)라는 유적지를 컴퓨터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계곡이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방 4개짜리 대형 주택은 아마도 주지사의 거주지이거나 이 도시의 통치자를 위한 행정 거주지였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와 여기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샤아림(Sha'arim), 즉 바로 근처에 있었던 두 개의 문을 의미한다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의 성경적 이름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입니다. 여기에 예술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술가가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David 근처에 고립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습니다. 시온 산이나 모리아 산이나 서쪽 언덕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혼 샘의 연장선이 있고 거기에는 도시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탑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는 팀나(Timna)의 슬레이브 힐(Slaves Hill)이 있는데, 이 시기에 구리 채굴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속화되었으며 적어도 내 생각에는 확실히 그들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Dan에서 비석 조각의 클로즈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집, 베이트 다윗(Beit David)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술 활동과 추측,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현대 문서에서 데이비드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이 비석은 다비드 자신이 나온 지 약 1세기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왕조, 즉 다윗 가문의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다윗의 삶과 그의 유산, 다윗의 초기 시절에 대한 성경적 초상화입니다. 그는 다시 베들레헴과 르바임 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

Gilo라는 이름의 Iron One 사이트는 향후 슬라이드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부분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궁정의 일원이었던 기브야. 골리앗을 물리친 엘라 계곡.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시 가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야기스에서 가드 왕 야기스와 함께 섬기며 시글락 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면서 그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기 때문에 유다 광야는 다윗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곳에는 나중에 헤롯 왕조의 요새였던 마사다를 일컫는 용어일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장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벳새다.

그의 아내 중 하나는 게셀의 공주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라바트 아몬은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보낸 곳입니다. 비문, 텔 단, 모압 비석, 카르나크 사원 모두 다윗의 집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개 모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발견된 유적지인 키르베트 케이야파(Khirbet Qeiyafa)는 초기 군주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나 밸리(Timna Valley)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슬레이브 힐(Slaves Hill) 위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팀나 계곡과 에돔 저지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 10세기 구리 채굴 및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발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걸음 물러서서 다윗 시대의 세계를 보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호의 기회를 봅니다. 아시리아인, 바벨론인, 이집트인은 모두 쇠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권력 공백이 존재하며, 이 거대한 지역에는 레반트의 작은 왕국이나 지역 왕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강대국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전쟁과 조약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하여 작은 제국은 아니더라도 매우 강력한 지역 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불과 1~2년 전인 다윗의 집인 텔단 비석이 거의 동시에 발견되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는 신사 Philip R. Davies가 책을 바라보며 카메라를 향해 싱긋 웃으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불가지론자이거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인용문을 통해 다윗 왕이 아서 왕만큼 역사적 인물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전설적이며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이나 2년 안에 그들은 Tel Dan Stele을 발견합니다. 데이비스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제기한 도전은 이것이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음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다윗의 집으로 쉽게 읽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Tel Dan Stele 전체의 또 다른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199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Hebrew Union College)의 선임 고고학자인 아브라함 비란(Abraham Biran)은 1966년부터 단(Dan)에서 발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의 조수는 일종의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Dan의 바깥쪽 문 밖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비문이 새겨진 벽에서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현무암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비란이 왔습니다. 내 기억에 그녀의 이름은 길라 쿡인 것 같은데, 그녀는 '맙소사, 우리에게 비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이 비문의 더 많은 현무암 조각을 찾아 이 두 개, 다른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여전히 매우 단편적이지만 더 많은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서 나온 아람어인데, 아마도 하사엘이 다윗이 죽은 지 100년 후에 단을 점령하고 이 비문에서 이스라엘 왕과 다윗 가문의 왕이 그들을 패배시켰다고 언급했을 때일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 왕조인 다윗의 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비이스라엘 출처로부터 본질적으로 현대 문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적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Philip R. Davies의 모든 작업과 David가 그의 역사적 아서 왕에 관한 그의 인용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한 프랑스 학자가 다시 모압 비석인 메사 비석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텔 단(Tel Dan) 비문 당시의 비석이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모압 왕 메사가 트랜스요르단에서 기원전 840년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아래쪽 선은 불분명했지만, 이 선을 연구하고 있던 교수인 앙드레 르 마이어(Andre Le Maire)는 거기에 있는 다윗의 언덕이라는 용어를 인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이집트학자인 KA Kitchen은 카르나크에서 시샤크 목록을 읽고 있었고 시샤크 비문에서 다윗의 고원도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고원은 카르나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집은 메사 비석과 텔 단 비석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과 몇 년 안에 세 가지 참고 문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비문에 관한 것 하나, 오랫동안 알려진 비문에 관한 것 2개.

다시 베들레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데이비드가 자란 곳이다. 우리는 그의 집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관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들레헴은 거대한 도시로, 아마도 이 시점에서 절반은 기독교인이거나 대다수는 무슬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역시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Bulla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볼 것이다.

최근 예루살렘에서 매우 중요한 인장이 찍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로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Beit, Tav, Lamed, Hay 및 Mem의 시작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비문입니다. 기원전 700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좋아요, 우리는 이전에 르바임 계곡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르바임 계곡을 내려다보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의 곡창지대입니다. 이 계곡은 소릭 계곡으로 내려가서 궁극적으로 해안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세펠라에서 이 골짜기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을 공격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장군이었고 그의 병사들을 골짜기 옆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들을 공격하여 쳐부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곳에서 왜 그토록 성공했을까요? 그런데 6일 전쟁 직후 남쪽 르바임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로(Gilo)라고 이름 붙인 곳은 매우 소박하고 잘 보존되지 않은 철 1세 이스라엘 정착지였습니다. 길로(Gilo)는 사실 고대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유적지와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로(Gilo)라고 불립니다. Gilo에는 다시 일종의 경계 벽이 있고, 다시 말하지만 잘 보존되지 않은 일부 집이 벽의 일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도 8세기에 건설된 Iron II 망루입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 북쪽에는 르파 임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견고한 탑인 아이언 I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골짜기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었던 곳도 바로 이 곳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나는 또한 길로와 르바임 골짜기 상류 지역이 다윗 가문 곧 다윗 가문의 재산이자 영토였다고 믿습니다. 르파 임 계곡을 따라 발견된 터널과 일부 왕실 건축물로 인해 이곳은 나중에 다윗 왕조의 철기 시대에 왕실 소유지가 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왕실 향아리 손잡이에 언급되거나 찍힌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길로를 발굴한 사람은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저의 전 교수 중 한 분이었던 아미 마자르(Ami Mazar)였습니다. 그리고 Ami Mazar는 이것을 발굴하는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불행하게도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주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 자체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중요성은 다면적입니다. 현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거기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지형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길로 정착민들에게는 봄이 없었고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처리되고 연구되는 동시에 일부 이스라엘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하고 심지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도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길로에는 물 공급원이 없었지만 예루살렘에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버려지고 길로가 점령당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길로가 수원 없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와 군주제 사이의 전환기 동안 예루살렘이 아마도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였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합니다. 사울 기브아의 또 다른 모습.

이곳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초기에 사울의 궁정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골리앗과 싸웠던 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갑옷에 대해 매우 설명적인 용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코넬 대학의 학자인 Jeffrey Zorn은 약 15년 전에 골리앗의 갑옷과 그 설명에 따른 기록의 역사성에 관해 훌륭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에게서 배신당했을 때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와 블레셋 성 가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길보아산 전투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것이 그 여파로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 시대나 그 직후에 한 예술가가 예루살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강의를 통해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에 묘사된 이곳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공격의 산의 그림에서 벗어나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부르는 대로 티로포에온 계곡(Tyropoeon Valley) 또는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가 있는데, 치즈 제조업자들의 계곡이 여기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이는 양면 또는 3면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보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예루살렘의 원래 핵심 정착지였던 다윗 성의 북쪽에는 이러한 확장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윗이 정복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약한 부분이 북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멜로(Melo)라는 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리아산, 즉 시온산, 실제로는 성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디딤돌 구조물과 그 위에 있는 시온 성채, 즉 다윗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아래에는 도시의 집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곳을 정복한 다음 요압과 다윗이 통치한 지 7년 동안 그곳을 정복할 때까지 다시 여부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훌륭한 전략적 기능이 없었습니다. 주요 도로인 총대주교의 길(Route of the Patriarchs)은 서쪽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도시에 도달하려면 도로에서 도보로 20~2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보호되었지만 북쪽에서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거기에서 문과 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여기 이 지역 어딘가에 샘, 수원, 기혼 샘이었습니다.

최근 발굴 결과에 따르면 성벽은 성벽에서 나왔고 그 샘을 보호하는 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벽과 탑이 아니라 터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것은 후기 족장 시대인 중기 청동기 시대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결코 인상적인 성읍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바로 있고, 외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져다가 왕의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중립지역이었기 때문에 눈부신 행보였다.

어떤 부족도 자신의 영토에 수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그 성을 차지하고 모리아산을 에워싸도록 확장하였더라. 이 벽의 일부는 오늘날 성전 산 남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궁전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추측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궁전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지만, 여러 개의 궁전과 물론 성전 건물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중 많은 부분이 다소 추측적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강의에서 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은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헤게모니 아래 있는 작은 블레셋 지역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올라가는 길에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신이거나 직접 통치하는 시리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윗 치하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적어도 솔로몬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반트를 장악한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니키아인들은 그들의 영토를 유지했고, 솔로몬의

통치 중 어느 시점에 카발라 땅이 그들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해안선을 갖고 있었고, 항구를 원했고, 이스라엘은 농작물과 올리브를 재배했고, 페니키아인들은 그것을 지중해 건너 시장으로 운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역사가 금석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신석기 시대, 심지어는 확실히 금석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발굴은 매우 어렵고 매우 복잡합니다. 4미터를 파서 아마도 그리스도 시대의 로마 도자기에 부딪힌 다음 즉시 기반암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5피트 위로 이동하여 파내면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심지어는 기반암 틈새에서 금석 조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5피트 거리에 있는 이곳은 로마 시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간 곳이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글썄, 로마인들은 아마도 그곳에 구조물을 건설하고 그것을 기반암으로 정리하여 모든 오래된 자료를 근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매우 조심스럽게 발굴되어야 하고, 때로는 이갈실로 발굴의 경우처럼 실제로 옹기대 위에 층위를 그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는 명확한 층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발굴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성경의 역사가 이곳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굴하기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05년, 이스라엘 고고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벤자민 마자르(Benjamin Mazar)의 손녀인 에일랏 마자르(Eilat Mazar)는 다비드(David) 도시에서 발굴 작업을 했으며 실제로 철 I 시대 말기 또는 철 II 시대 초기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매우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발굴되었고 부분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경의 자료와 땅에서 발견된 자료 덕분에 다윗 왕궁의 성벽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예술가의 표현인 Leen Ritmeyer는 David의 궁전이 아마도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고 아마도 Eilat Mazar에 의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는지를 그린 것입니다. 이 호안 벽 또는 호안 유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궁전은 여기 이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는 여기 다윗 성의 동쪽 경사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도시를 바라보는 David의 모습을 예술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도시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나중에 이야기할 볼류트 수도의 스타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은 고고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많은 것을 발굴한 Eilat Mazar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큰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Khirbet Qeiyafa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엘라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Khirbet Qeiyafa의 또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울의 본부였을 수도 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본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의 정확한 날짜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대략 50년에서 100년 정도만 점령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직업이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히 잘 보존되었습니다. 굴착기 요시 가핀켈(Yossi Garfinkel)이 여기에서 신전의 점토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사에서 이것이 후기 솔로몬 성전을 묘사하는 초기의 원형 신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Khirbet Qeiyafa에서 발견된 부분적으로 복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기에서 발견된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라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Khirbet Qeiyafa의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곳의 도자기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인해 다시 교과서가 거의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엘라 계곡

아래쪽에 대한 유대인의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분명히 유대인의 유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작은 추장이나 베두인 천막에서 통치하는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진짜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확실히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여기에 사이트의 일부 도자기와 사이트의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건물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울이나 다윗 시대에 사아림을 다스렸던 총독의 집이거나 행정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 성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터널이 굴착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약 100년 전, 약 110년 전인 1914년에 발굴되었습니다.

그 후 레이몬드 바일(Raymond Bile)이라는 프랑스 고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고고학자였으며 예루살렘을 발굴한 최초의 유대인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기반암까지 굴착하여 이 두 개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다윗 왕조의 왕릉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즉시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가 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한 일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동쪽 성벽을 따라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왕들의 무덤 맞은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일이 이것을 파냈을 때, 이곳은 느헤미야가 있었을 대략적인 근처였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중에 채석되었습니다. 원래는 더 멀리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캐슬린 케년(Kathleen Kenyon)은 1960년대 예루살렘을 발굴할 때 그것이 저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반죽을 칠했다면 나중에 저수조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용도였습니다. 초기 용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에 대해 다시 쓴 Geoffrey Zorn의 또 다른 기사에서 그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하솔에 있는 왕릉과 유사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Uritu 왕들의 무덤이 기반암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있는 갤러리 스타일을 모방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의 무덤의 남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래 전부터 도굴되고 채석되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채석되었지만 여전히 그 중 남은 부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보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다윗의 무덤을 보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의 가이드가 이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를 시온 산 위 다락방으로 데려가서 이르기를 여기가 다윗의 무덤이요 또 네게 석관을 보일 것이요 너는 야르물케를 입고 거기 서서 이것을 볼지니라 이것은 분명 다윗의 무덤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시온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시대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서쪽 언덕의 꼭대기이다. 이름이 잘못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확실히 다윗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와 그의 후계자들이 살았던 웃사 동산의 궁전으로 인해 시온산 꼭대기에 후기 유다 왕들의 무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궁전이 시온산 꼭대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일종의 작은 부분이나 작은 진실의 알갱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후기 왕들 중 일부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 근처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약 20년 전,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톰 레비가 현대 국경의 요르단 쪽 아라바를 따라 에돔 저지대에서 구리 채굴 작업을 연구하고 발굴하기 시작했고 키르베트 엔나하스라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 또는 구리 폐허에서 매우 정교한 요새와 구리 채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베두인족의 작전이나 부족의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왕국이 수행한 매우 정교하고 잘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어느 왕국? 에돔 사람들이었나? 글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쪽 아라바의 팀나 남쪽에서 텔아비브 대학교의 에레스 벤-요세프는 팀나 근처 현장에서 추가 구리 채굴 작업장을 발견했습니다. 슬레이브힐 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에 따르면 이 시기는 다윗 시대인 1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세션 16, 고고학과 역사적 다윗입니다.